

선율 (Youl Sun)

폭넓은 레퍼토리를 기반으로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피아니스트 선율은 아시아-태평양 쇼팽 콩쿠르 1위, 미국 E-피아노 청소년 국제 콩쿠르 2위와 슈베르트 특별상, 신한음악상 등을 수상하며 일찍이 두각을 나타냈다.

2023년 비제우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서 2위와 청중상을 받았고, 같은 해 윤이상국제음악콩쿠르, 2024년 마리아 카날스 국제 콩쿠르와 이스탄불 오케스트라 시온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서도 연이어 입상하며 국제 무대에서 성과를 이어갔다. 특히 2024년 지나 바카우어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서 우승·청중상·학생심사위원상을 모두 거머쥐며 3관왕을 차지했고, 같은 해 서울국제음악콩쿠르 1위를 기록하며 그의 음악성을 다시 한번 입증하였다. 또한, 2026년 마포문화재단 M아티스트로 선정되며 피아니스트로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있다.

선율은 아브라바넬 홀, 로즈 와그너 공연예술센터, 네덜란드 콘세르트헤바우, 필하모니 룩셈부르크, 벨기에 아뮌, 프랑스 코르토홀, 일본 긴자 야마하홀, 예술의전당, 롯데콘서트홀, 통영국제음악당, 성남아트센터, 경기아트센터, 고양아람누리, 금호아트홀 등 국내외 주요 무대에서 자신만의 음악적 세계를 선보여 왔다. 또한 경기피아노페스티벌, 야마하 라이징 피아니스트 콘서트, 금호영아티스트콘서트, 금호영재콘서트, 금호영체임버콘서트, 더하우스콘서트, 줄라이페스티벌, 온드림 스테이지, 통영국제음악제, DMZ OPEN 국제음악제 등 다양한 무대에서 솔로뿐 아니라 실내악과 협연 등 다양한 형태로 관객과 만나고 있다.

그는 안토니 비트, 마시모 자네티, 마크 러셀 스미스, 아드리안 페뤼송, 코너 그레이 코빙턴, 쟈마 뉴, 세르게이 심바탄, 홍석원, 최수열, 이승원 등 저명한 지휘자들과 협연하였으며, 유타심포니, 미네소타 오케스트라, KBS교향악단, 경기필하모닉오케스트라, 성남시립교향악단, 부천필하모닉오케스트라, 경상북도도립교향악단, 코리안챔버오케스트라, 한경arte필하모닉오케스트라, 통영페스티벌오케스트라, 필하모니코리아 등 유수의 오케스트라와 무대에 올랐다. 더불어 피아니스트 배재성과 결성한 '하랑' 듀오로도 활동하며, 베토벤 교향곡 전곡을 두 대의 피아노로 선보이는 등 피아노 앙상블 분야에서도 활동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예원학교와 서울예술고등학교(명예졸업)를 거쳐 한국예술종합학교에 영재선발전형으로 입학·졸업한 선율은 이후 프랑스로 유학해 파리 스콜라 칸토룸과 에콜 노르말 음악원을 졸업하였다. 김대진 교수를 사사했으며, 현재 올리비에 가르동 교수를 사사하며 현대차 정몽구 재단 예술 장학생으로 지원을 받고 있다.